

# 대륙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复旦大学 (姜宝有)

## 1. 서론

통일적인 발음 교육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과학적인 기준이 없이 교과서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나름대로 자모음 교육 순서가 매겨 지고, 발음 위치가 정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의 현주소이다.

중국 대륙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은 전문적인 발음 교재가 없이 그리고 발음교육과정이 배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독과(精讀課)의 몫으로 기초 단계의 ‘초급한국어’ 교과서에 많이 의존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는 중국어와의 대조 속에서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 연구가 발음 오류에 대한 분석으로서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발음 오류 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어서 발음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는 앞으로 발음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 발음 오류 원인을 밝히는 데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발음 오류가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느 정도의 장애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언어 연구에 그 연구 영역을 넓혀 가야 할 것이다.

20 대에 막 진입하고자 하는 성인들이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처음부터 발음 오류를 극복한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발음 교정이 뒤따르게 된다. 최대한 빨리 발음 오류를 극복하고 정확한 발음을 함으로써 모국어 화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발음 교육의 목표이고 발음 교육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2. 발음 교육 연구 현황

외국어 습득의 시각에서 볼 때, 애초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학습자의 심리부담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관건적인 동기부여 대목이기 때문에 발음 교육에 대한 논의는 줄곧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는 지역적으로 볼 때 한국 내에서의 연구와 중국 대륙에서의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송향근(2010)에 따르면, 1990 년대부터 2009 년 8 월까지 한국 내에서 발표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논문이 총 197 편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서 주제별로 어휘, 발음, 문법 등 교육 내용의 논문이 총 91 편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67 편이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이었다. 문법 오류, 어휘 오류, 발음 오류 등 오류 분석에 관한 논문은 모두 64 편이었는데 발음 오류를 분석한 논문이 모두 20 편이었다. 이로써 한국 내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 대륙에서 발표된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논문은 주로 아래와 같은 논문집에 수록되어 있었다.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의 학회지 《韓國(朝鮮)語教育研究》(1-7)에서 159 편, 연변대학교 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편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I-VII)에서 84 편, 연변대학교 조선언어문학학과 편 《조선-한국언어문학연구》(1-5)에서 12 편,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경제문화연구소 편 《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 교육의 현황과 장래》에서 28 편, 리원길 주필 《세계속의 조선(한국) 언어문학 교양과 교재편찬 연구》에서 10 편, 이용해 주필 《한국학연구》에서 7 편, 김영수·리민덕 편 《한국어교육논문집》에서 16 편으로, 도합 316 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23 편이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이었다. 중국 대륙에서는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이 한국 내보다 훨씬 적은 대신 어휘, 문법 교육 관련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을 내용별로 볼 때, 발음 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에 관한 논문보다 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실제적인 발음 교육 방법에 관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먼저, 발음 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발음 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한국 내에서는 김은애(2005:29-38)를 들 수 있고 중국 내에서는 김영금(2009:184-200)과 김충실(2009:215-233)을 들 수 있다.

김은애(2005:29-38)에서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진행되는 발음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발음 교재 개발, 발음 교육 과정과 교수요목 설계, 신규 교사 연수 및 경력 교사 재교육, 발음 교육용 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표준 발음법의 적용과 현실 발음의 인정, 발음 교정 교육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김영금(2009:184-200)과 김충실(2009:215-233)에서는 중국 대륙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과 연구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비한 과감한 제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김영금(2009:184-200)에서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발음 교육, 음운변화에 대한 발음 교육, 초분절 음소에 대한 발음 교육 등 면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 연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지적하였다.

김충실(2009:215-233)에서는 한국에서의 연구와 중국에서의 연구로 나뉘어 고찰하면서 대조언어 이론과 중간언어 이론으로 발음 교육을 조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상 논의들에서 보면, 발음 교정을 위한 발음 오류 분석 방법, 발음 교육 과정과 교수요목 설계, 발음 교육 도구로서의 교재 개발 등에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발음 교육 실천 경험에 기초한, 실제적인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한 대륙에서의 논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금송(2000)에서는 한중 언어의 음운 대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실태, 효과적인 발음 지도 등 세 가지 내용을 다루었다. 노금송(2002:151-169)에서는 발음 오류 분석으로부터 음운 발음 지도, 음운 변화 지도, 중국어 간접 극복 등으로 중국인 화자가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주옥과(200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흔히 틀리는 발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교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정확한 시범을 보여주면서 반복적인 강화 연습으로 발음 오류를 그때 그때 바로잡아 줄 것을 제안했다.

유춘희(2002)에서는 경음과 경음화를 발음생리학적으로 고찰하고 학습자들에게서

존재하는 몇 가지 발음 오류를 분석하면서 모음 뒤에서의 경음 발음과 평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왕단(2003)에서는 고급 학습자들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절음소, 음운변화, 초분절음, 발음기법 등으로 나누어 살피면서 열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수용(2004)에서는 중간언어이론에 기초하여 발음 오류 발생 원인을 밝히고 그로부터 발음 오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근보강(2005)에서는 대비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체계를 비교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조음 방법을 시시각각 모방하게 하는 발음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들은 한중 언어 음운 대조 속에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주로 한국어 발음 오류 극복 방안으로 음운 변화에 따른 발음 지도 방안과 초분절 음소에 따른 발음 지도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어 음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자음에서는 경음 [ㄱ, ㄷ, ㅌ, ㅍ, ㅊ] 발음, 유음 [ㄹ] 발음, 비음 [ㅇ] 발음을 들 수 있고, 모음에서는 [개]와 [해], [-]와 [ㅣ]의 혼동을 들 수 있고 [ㄴ]과 [ㄷ]의 발음도 중국어의 간섭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들 수 있다. 음운변화에서는 연음화,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등으로 나타났다.

### 3. 발음 교육 연구 과제

중국 대륙에서의 발음 교육 연구 현황 분석으로부터 보면, 실제적인 발음 교육에 있어서 발음 오류를 막는 효과적인 발음 지도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한국어 자모음 교육 순서와 시간 배당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2. 한국어 자음 발음을 음운으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음절로 가르칠 것인가?
3. 자모음의 발음 위치를 무엇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4. 음운변화 규칙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주입할 것인가?
5. 실험음성학적인 분석과 이론을 어느 정도 도입할 것인가?
6. 초분절음(장단, 고저, 억양)을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하는가?
7. 교사의 음운학 지식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
8. 발음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9.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이 필요한가?
10. 발음 오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발음 오류 위계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상의 과제들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덜 논의된 과제들로서 한국어 발음 오류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통일적인 발음 교육 방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열 가지 과제 중에서 제 2, 제 3, 제 6, 제 8, 제 9의 과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되었거나 합의를 보고 있었다.

예컨대, 자음의 발음을 가르칠 때, 중국 대륙에서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가, 다, 나, 라……” 식으로 처음부터 직접 음절 발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음성기호에 맞추어 [k], [n], [t], [r] (“ㄱ, ㄴ, ㄷ, ㄹ……”에 가운데 모음 “-”를 살짝 붙여 “그, 느, 드, 르 ……”)로 발음 연습을 시킨 다음 기타 모음을 붙여 음절 발음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자모음의 발음 위치는 교재마다 조음 기관의 단면도를 붙이고 설명하고 있다. 발음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에서는 한중 언어 음운 대조를 통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초분절음에 대한 기초단계 교육의 필요성과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전혀 논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을 중심으로 자모음 교육 순서와 시간 배당, 음운 규칙 제시 순서, 음성학과 음운학 이론 지식 장악과 전수, 중간언어 연구와 발음 오류 위계 검증 등 네 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륙에서의 발음 교육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네 교재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sup>1</sup>.

李先汉 安炳浩 朴忠禄 等 《韩国语》(1), 民族出版社, 2000  
 崔羲秀 主编 《初级韩国语》(上), 延边大学出版社, 2002  
 姜银国 姜宝有 蔡玉子 主编 《初级韩国语》(上),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05  
 张光军 张威威 范若冰 编译 《韩国语教程》(1), 世界图书出版公司, 2007

### 3.1 자모음 교육 순서와 시간 배당

모든 외국어 교육이 그러하듯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도 발음 교육으로부터 첫 수업이 시작된다. 중국 대륙에서 편찬된 모든 한국어 정독과 교재들은 자모음 발음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교재마다 자모음 교육 순서와 시간 배당이 편찬자 나름대로 짜여져 있어서 어느 시간 내에, 어떤 순서로, 무엇부터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통일된 방안이 없이 자모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네 교재를 중심으로 자모음 교육 순서와 자모음 교육 시간 배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네 교재는 자모음 교육 순서에서부터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네 교재 모두가 교차적으로 모음 다음에 자음을 가르치는 순서를 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모음과 자음의 교육 순서는 많이 달랐다.

모음 교육 순서에서 보면, 북경대, 연변대, 복단대는 단모음으로부터 이중모음 순서를 택하고 있지만 낙양외대는 단모음과 y-계 이중모음을 사이 사이 가르친 후 w-계 이중모음을 가르치는 순서를 택하고 있었다.

네 교재는 또 자음 교육 순서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북경대는 양순음-치조음-경구개음-연구개음-후음 순으로 조음 위치상 앞으로부터 뒤로의 순서를 택하였다. 연변대와 낙양외대는 평음/비음/유음-격음-경음 순서를 택하고 복단대는 평음-비음/유음-경음-격음 순서를 택하면서 이 세 교재는 약간의

<sup>1</sup>설명의 편의와 그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李先汉 安炳浩 朴忠禄 等 《韩国语》(1)은 북경대, 崔羲秀 主编 《初级韩国语》(上)은 연변대, 姜银国 姜宝有 蔡玉子 主编 《初级韩国语》(上)은 복단대, 张光军 张威威 范若冰 编译 《韩国语教程》(1)은 낙양외대로 잠정 부르기로 한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조음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받침의 경우에는 네 교재 모두가 대체로 흘받침으로부터 겹받침의 순서를 택하고 있었는데, 북경대, 복단대, 연변대는 흘받침에서 대표음 7 개 받침을 먼저 가르치는 순서를 택하고 있었다.

다음, 자모음 교육 시간 배당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모음 발음법을 북경대는 모두 8 과에 나누어 배당하고 연변대는 18 과에 나누어 배당하고 있다. 복단대는 10 과에 나누어 배당하고 낙양외대는 15 과에 나누어 배당하였다. 그중 받침 소리 교육 시간 배당에서 복단대는 2 과에 배당하고 있지만 북경대는 4 과에, 낙양외대는 6 과에, 연변대는 7 과에 나누어 배당하였다. 이렇게 자모음 교육 시간 배당이 교재마다 자기 나름으로 되어 있어서 발음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시간상 제한된 발음 교육 과정에서 자모음 교육 시간 배당이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효과적일 수 없다. 정확한 외국어 발음 습득은 반복적인 연습과 교정이 필요하고 지역마다 학습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모음 교육 시간 배당은 적중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 습득은 사람에 따라 불과 며칠에서 끝날 수도 있고 1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또 학습자는 평생교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자모음 습득의 난이도 위계 검증을 거쳐 자모음 교육 순서와 시간 배당에서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3.2 음운 규칙 제시 순서

음운 규칙 제시 순서도 교재마다 달랐다.

북경대는 자모음 발음 교육이 완전 끝난 다음 제 9 과에서 음운 규칙을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는데, 연음화, 경음화, 동화, 축약, 탈락, 첨가, 두음화 등 순서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문 단원에서 단어해석에 이어 음운 규칙에 따른 해당 단어들의 발음법을 제시함으로써 음운 규칙을 잘 파악하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연변대도 자모음 발음 교육이 완전 끝난 다음 단계인 제 19 과에서 음운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음절말 평과열음화, 연음화, 자음동화, 구개음화, 유기음화, 경음화, 첨가 등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복단대는 자모음 발음 교육이 끝난 후 바로 과문 단원이 시작되는데, 과문 단원에서 출현되는 순서에 따라 음운 규칙을 사이 사이 제시하고 있었다. 그 출현 순서를 보면, 연음화와 경음화, 자음 동화와 [ㅂ→ㅌ] 불규칙 활용, 격음화와 [ㄷ→ㄹ] 불규칙 활용, [ㄹ→ㄹ ㄹ] 불규칙 활용, [ㄹ→ㄹ ㄹ] 불규칙 활용, [ㄹ→제로] 불규칙 활용, [ㅎ→탈락] 불규칙 활용, [ㄷ, ㅌ→탈락] 불규칙 활용, [ㅅ→탈락] 불규칙 활용 등 순이다.

낙양외대는 40 개 자모음 발음 교육이 끝나는 대로 받침 소리 교육과 동시에 음운 규칙이 제시되고 있는데, [ㄷ→ㄹ] 불규칙 활용, [ㅅ→탈락] 불규칙 활용, [ㅎ→탈락] 불규칙 활용, [ㅌ→탈락] 불규칙 활용, [ㄹ→제로] 불규칙 활용, [ㄹ→ㄹ ㄹ] 불규칙 활용, [ㄹ→ㄹ ㄹ] 불규칙 활용, [ㅂ→ㅌ] 불규칙 활용, 그리고 연음화, 축약, 탈락, 첨가, 경음화, 자음동화, 두음화 등 순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한국어 음절구조 특성상 음운 규칙은 발화 환경이 주어진 과문 단원에서 취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음의 불규칙 활용, 음운의 탈락과 축약 등은 흔히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만큼 과문 단원에서 서서히 취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집착되지만 교수실천에서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교재마다 어떠한 잣대도 없이 자기 나름으로 음운 규칙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중국 대륙에서는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라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서 어떤 음운 규칙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어떤 음운 규칙을 어떤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장향실(2008 ; 427-446)이 대표적이다.

장향실(2008:445)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효과적인 음운 규칙 교육 순서를 ‘난이도, 사용 빈도, 일반화 가능성’ 등 세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평폐쇄음화 → 연음 → 장애음 뒤 경음화 → 격음화 → 장애음의 비음화 → 자음군 단순화 → 설측음화 → 설측음의 비음화 → 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 → ㅎ 탈락 →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 구개음화 → 관형형 {-을} 뒤의 경음화

난이도, 사용 빈도, 일반화 가능성 등에 따라 위계 검증을 거친 이상의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도 이론 실천적으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적용 타당성 여부가 교육 현장에서 논의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난이도, 사용 빈도, 일반화 가능성 등에 따른 위계 검증을 거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음운 규칙 제시 순서를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

### 3.3 음성학과 음운학 이론 장악과 전수

발음생리학적으로 볼 때, 한국어의 모든 자모음들은 고정된 조음 위치에서 규정된 조음 방법으로 발음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재마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면서 발음법이 혼동됨으로써 학습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음성학적인 과학적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유음 ‘ㄹ[r]’의 발음 방법을 교재마다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북경대: 发音时, 舌尖先**抵住**上齿龈, 然后松开, 使气流冲出成颤音。

연변대: 发音时, 舌尖**往上弹**上齿龈。

북단대: 发音时, 舌尖**靠近**上齿龈, 然后使气流通过口腔, 这时舌尖轻轻地弹一下, 同时声带要震动。

낙양외대: 发音时, 舌尖**抵住**上齿龈, 然后使气流冲出成颤音。

보다시피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가 가까이 근접하는가에 따라 조음 방법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찰음 ‘ㅅ[s]’의 발음에 대해서는 조음 방법뿐 아니라 조음 위치마저 서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북경대: 发音时, 舌尖抵住**下齿龈**, 舌面接近**硬腭**, 使气流从舌面部与硬腭之间的空隙处挤出来, 摩擦成声。

연변대: 发音时, 软腭上升堵住鼻腔的通路, 舌尖靠近**上齿背**, 使气流从中间的缝隙中挤出来,

摩擦成音。

복단대: 发音时, 舌尖抵住下齿背, 舌面前部接近硬腭造成窄缝, 使气流通过这个窄缝摩擦而成声。

낙양외대: 发音时, 舌尖抵住下齿, 舌面接近上腭, 使气流从舌尖和上腭之间的空隙处摩擦而出。

摩擦成声。

마찰음 ‘ㅅ[s]’의 발음 위치를 下齿龈, 下齿背, 下齿, 심지어 上齿背로 서로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어 자모음의 발음구조에 대한 음성학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험음성학 이론의 지도에 따른 발음 모호도 측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발음 교육 단계에서 외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음성학이고 모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음운학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외국어 교육에서 교사는 음운학 이론 지식 습득에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합격된 한국어 교사라면 음성학 이론 뿐 아니라 음운학 이론도 장악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자음에서는 유성성의 여부가 음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어떤 소리가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를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외국어 화자로서는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을 엄연히 다른 음운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빨리’에서의 설측음 [l]과 ‘라면’에서의 탄설음 [r] 그리고 ‘바보’에서의 어두 혹은 자음 사이의 무성음 [p]와 모음 사이의 유성음 [b]은 음성학적으로 엄연히 구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음운학적으로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학습자에게 명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발음 교육 방법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음성학적인 발음 방법 전수도 중요하겠지만 음운학적인 인지 방식 전수도 중요함을 말해준다.

### 3.4 중간언어 연구와 발음 오류 위계 검증

발음 오류 분석의 목적이 오류 현상 분석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데 있다. 그러자면 반드시 오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발음 오류 분석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논문들은 중국어와 한국어 음운구조 대조 속에서 중국어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에서부터 그 대비책을 찾고자 하였다. 즉 학습자의 입장에서 발음 오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었다.

발음 오류를 분석함에 있어서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발음 오류가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 어느 정도의 장애를 주고 있는가에 대한 중간언어 연구에서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발음 오류 분석은 학습자의 발음(發音) 입장에서뿐 아니라 모국어 화자의 수음(受音) 입장에서도 고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발음 오류는 결국에 가서는 의사소통 장애 요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현재 발음 오류 분석에서 많이는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에만 집착할 뿐 그 발음 오류가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느 정도의 장애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다.

발음 오류에 대한 계량학적인 통계 분석이 있어야 맞춤형 발음 교정을 할 수 있고 발음 오류에 대한 모국어 화자의 이해도 평가가 등급별로 매겨져야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발음 오류 위계 검증을 함에 있어서 초성 오류, 중성 오류, 종성 오류 가운데서 어느 것이 비중이 더 높고 또 어느 것이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더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위계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중간언어 연구 입장에서 일본인 학습자의 오류 평가를 고찰한 최선영(2005:201)에 의하면, 초성 오류와 종성 오류의 이해도는 중성 오류 이해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모국어 화자가 모음 오류가 포함된 문장을 자음 오류가 포함된 문장에 비해 더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음 발음 교육에 더 많은 신경 써야 함을 말해준다.

중간언어 연구 시각에서 볼 때, 발음 오류의 위계 검증은 또 문법 오류 평가와 어휘 오류 평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그중 어느 오류가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서 더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최선영(2005:199)에 의하면, 일본인 학습자를 상대로 했을 때, 모국어 화자에게는 문법 오류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발음 오류이며, 어휘 오류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일본인 학습자와 한국인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문법 오류보다 발음 오류나 어휘 오류가 더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보고에 비추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사이의 의사소통에서는 발음 오류가 어느 정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결론

선행 연구에서는 발음 교정을 위한 발음 오류 분석 방법, 발음 교육 과정과 교수요목 설계, 발음 교육 도구로서의 교재 개발 등에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한중 언어 대조 속에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면서 주로 한국어 발음 오류 극복 방안으로 음운 변화에 따른 발음 지도 방안과 초분절 음소에 따른 발음 지도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륙에서는 자모음 교육 순서와 시간 배당, 음운 규칙 제시 순서, 음성학과 음운학 이론 지식 장악과 전수, 중간언어 연구와 발음 오류 위계 검증 등 많은 과제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한국어 발음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논의될 연구 과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 공간이 넓고 전망이 밝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이런 연구 과제들이 완성됨으로써 대륙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는 밝은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통일적인 발음 교육 지도 방안이 제정됨으로써 대륙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실천은 과학적인 이론의 지도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대륙에는 한국어 교육과 연구 환경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교사진과 연구진이 방대하게 포진해 있고 학문적으로는 대조언어학, 체계기능언어학, 문화언어학, 인지언어학 등 학문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연구 이론 기틀이 마련되어 있음으로써 한국어 발음 교육과 연구에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근보강(2005), 한중 어음 비교를 통한 한국어 발음 교육, '황해권 한중교류의 역사, 현황과 미래'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김경미(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북경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 김경숙(2003), 한국어 교수에서의 발음지도에 대하여,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김병운(2003), 발음교육에서 대립쌍장단음의 변별적 기능훈련,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김병운(2004),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V,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태학사.
- 김선정.허용(2005), 발음 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 교육론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영금(2008),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의 연구 현황과 과제,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제 6 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김옥란(2003), 한국어 발음훈련의 몇 가지 체험,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김은애(2005), 발음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 교육론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중태(2003),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발음과 그의 해결 대책,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김충실(2008), 한국어 발음 교육의 어제와 오늘,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제 6 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노금송(2000),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금송(2002), 중국인 화자가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 교육의 현황과 장래, 도서출판 월인.
- 란효하(2008), 방언권별 발음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제 6 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문영자(2003), 발음교육에서의 長短音 구별에 대하여,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박숙자(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수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I, 태학사.
- 박창원(2004), 사잇소리의 공시론과 통시론,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제 2 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송향근(2010), 한국 내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韓國(朝鮮)語教育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下) (산동대학교),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 왕단(2003),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V, 태학사.
- 유춘희(2002), 우리말 된소리 교육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I, 태학사.
- 유춘희(2003), 한국어 음절발음교육에 대하여,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유효려(2008),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의 발음 오류에 대한 분석,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제 6 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이석재.김정아.장재웅(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음성 코퍼스의 설계, 구축 및 응용방안 연구,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제 4 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이정자(2003), 한자어교육과 중국어발음의 영향,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이중은(1997), 한국어 발음 교수방법과 모형, 교육한글 10.
- 이주행(2002),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의 발음 교육 방법,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I, 태학사.
-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해영 등(2005),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향(2003),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 개발 방안,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장향실(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 대상의 한국어 발음교육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 교육의 현황과 장래, 도서출판 월인.
- 장향실(200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 연구, 한국어 교육 제 19 권 3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전영근(2005),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교육에 관한 연구,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제 3 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정명숙(200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 방안,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제 3 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정정덕(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법 - 한국어 발음을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I, 태학사.
- 주옥과(2002), 한국어 발음에 대한 교육지도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I, 태학사.
- 지수용(2004),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어음 · 어휘 오류 분석 연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V, 태학사.
- 최금단(2002), 중국어권 학습자에 대한 한국 발음 교육, 이중언어학 제 20 호, 이중언어학회.
- 최선영(2005), 일본인 중·고급 학습자의 오류 평가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이해영 등),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은규(2003), 발음 교육의 과제와 실제,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하동매(2001), 초보학습자의 발음 오류와 해결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 태학사.
- 허웅(1981), 개정신판 국어음운학, 정음사.